



兩個石列의接觸部를 찾을 수 있었다. (사진) 柳內에는 모두 東枕하여 遺骸가 埋葬되었고 頭部 東側에 土器가 副葬되었다. 裝身具는 매우 貧弱하여 南柳에서 細環金製귀거리

一雙과 銀製腰帶의 痕蹟을 볼 수 있었고 北柳에서는 銀環 金製귀거리 一雙 靑玉과 勾玉으로 된 목거리 一連이 있었을 뿐이다. 그 외에 若干의 鐵製 利器 農具들이 들어 있었고 土器도 量과 質에 있어서 優秀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副柳의 土器도 十點未滿의 小量이었으며 特異한 것은 없었다. 여기 한가지 附言하여 들것은 積石의 北側 二個所에서 別個로 積石上에 暗葬된 小年의 遺骸가 있었고 積石上 東側에서 麗代의 銅匙 二點과 西側에서 同破片 一點 그리고 거의 中央部에서 銅錢 常平通寶 二點이 發見된 點이다. 이 一連의 遺物이 本質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遺骸는 暗葬으로 보면 고만이겠으나 銅匙의 發見에는 釋然한 解明이 내리지지 않았다.

三七號墳은 封土의 南側이 切斷되어 民家가 들어 앉았으며 北側은 比較的 原形을 保存하고 있었다. 積石木柳墳의 通式을 따른 墳墓로서 封土頂上에서 約三m 깊이에서 方形의 整然한 積石이 出現하였고 그 三個隅角地點에 各各 土器가 놓여 있었음은 柳과 的 連關을 聯想케 하였다. 이 積石에서 다시 約一m 밑에 東枕하여 遺骸를 埋葬하였고 頭上에 土器가 副葬되었다. 土器層에는 一個의 鐵釜와 一個의 銅製鏃斗가 包含되어 있었고 裝身具로는 金製太環귀거리 一雙 金製勾玉付冠飾 一雙, 靑玉과 勾玉으로 된 목거리 一連이 있었고 冠帽의 裝飾으로 보이는 三色의 小玉이 相當量 發見되었다. 그 외에 棺의 位置를 表示하는 듯 西端에는 ㄷ形으로 鐵錠이 놓여 있었고 그 한 귀퉁이에 土器가 놓여 있었다. 다만 太刀

가 發見되지 않은 點은 或 被葬者의 性別과는 무슨 關係가 있거나 않을 かい번에 調査된 柳의 位置는 南側에서 切斷된 封土도 아울러 생각한 다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됨으로 다시 南側으로 트렌치를 넣어 보았더니 積石의 一部가 나타나서 또 하나의 柳이 豫想되었으나 이것마저 發掘하자면 民家에까지 延長되지 않을 수 없음으로 다음 機會로 미루고 一段落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泗川舊坪里貝塚發掘調査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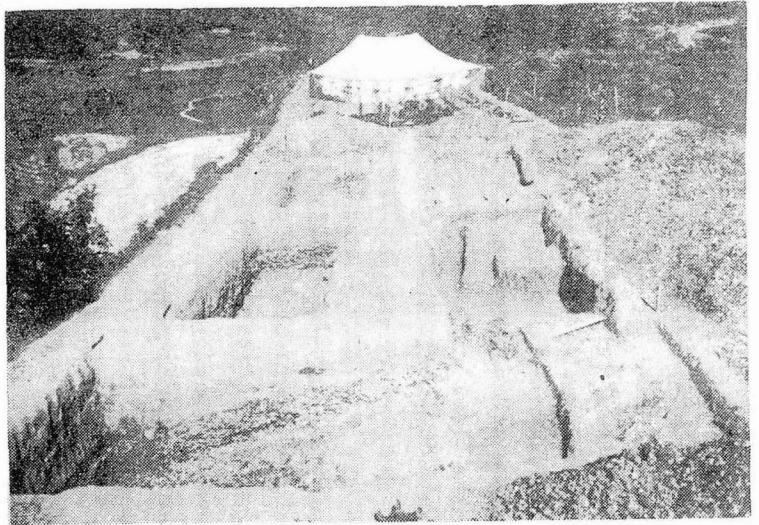
鄭 永 鎬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尙南道 泗川地區 先史時代의 遺蹟調査計劃에 따르는 第一次 調査로 지난 七月 十五日부터 二十七日까지 泗川郡 西浦面 舊坪里의 貝塚 一處를 發掘調査하였다.

現在 泗川郡內에 遺存하는 貝塚는 意外로 많은 편이며 ① 이곳 西浦面만도 數處 있으나 今番 舊坪里의 貝塚를 發掘케 된 것은 六月中旬 泗川郡守 金相朝氏의 紹介로 現地를 踏査한 바 ② 貝塚의 位置가 道路邊 이어서 나날이 많이 破壞되어감을 目擊하여 貴重한 先史遺蹟을 收拾코자 時急히 着手케 된 것이다.

이번 發掘調査에는 筆者가 主管하여 史學科生 男女十七名이 參加하였으며 同人 申榮勳 金東賢兩氏가 實測을 擔當하고 發掘進行과 遺物收拾까지도 指導해 주어서 計劃대로 圓滿한 作業이 遂行되었다. 今般 施行된 發掘調査의 詳細한 內容은 앞으로 發刊될 報告書에 依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發掘의 進行과 出土된 諸遺物의 內容을 略報코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貝塚는 道路邊인데 西浦面所在地에서 東쪽으로 三〇〇m 慈惠行 道路를 二年前에 新設할때 貝塚의 北쪽 一部가 끊기어 現在는 道路南側으로 斷崖를 이룬 地層속에 貝殼이 露出되어 있다. 地下七〇cm에서 시작된 貝層은 西쪽으로 漸次 깊어져서 길이 十三m 되는



③를 加하여 都台 다섯곳에 「트렌치」를 넣었다. 이 結果 東쪽의 限界가 뚜렷해졌고 南쪽도 S「트렌치」의 南端에서 거의 判明되었으나 西쪽은 繼續 깊어지며 連續되고 北쪽은 主要部가 道路工事 때문에 完全히 缺失되었음이 밝혀졌으며 또 東·南은 現地表에서 三〇cm 地下부터 貝殼이 始作되는데 西·北쪽으로 가면서 점차 깊어져서 S「트렌치」의 西北端에서는 地下一·四m에서 비로서 貝層을 볼 수 있었다.

出土된 諸遺物을 살펴보면 貝殼에서 굴껍질과 소라껍질이 제일 많고 그 밖에 우렁, 골뱅이, 꼬막, 조개 등 十餘種이었으며 骨片은 鹿角을 비롯하여 齒牙骨과 많은 獸骨이 採集되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이 方向專

斷崖地에서는 地表에서 二m 깊이에 露出되어 있어 이 貝塚의 東쪽 限界點과 그리고 西쪽으로 갈수록 깊고 두껍게 묻혀 있는 傾斜진 貝層임을 直感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路邊斷層에 平行하게 「트렌치」를 넣고 間地一·五m 幅을 通路로 設하여 A·B를 東쪽에 C·D를 西쪽 「트렌치」로 하여 同時에 (長五m 幅二m) 發掘하였으며 마지막에는 C·D의 西쪽에 가로(橫)로 S「트렌치」

門家の 再審에 依하여 分類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土器는 거의 有紋土器로 無文土器는 南쪽 限界點인 D「트렌치」의 西·南과 S「트렌치」의 南端 附近은 地下에서 出土되었다. 有紋土器는 魚骨紋, 斜格紋等 三十餘種의 施紋을 蒐集하였으며 特別 穿孔이 있는 土器가 多量으로 出土되었음은 注目할 만하다. 發掘된 土器片中에는 口緣部片이 많고 卵形底部와 尖底形도 數點 採集되었다. 骨器로는 骨針과 骨鈞가 出土되었으며 貝器는 主로 製身貝로서 貝殼을 도려내어 잘 갈아 판치형으로 만든 것이 數點 發掘되었는데 그 手法이 注目된다. 石器는 圓孔이 있는 鍾이나 왔으나 利器는 全無하였다. 이一帶의 丘陵은 現在 耕作地인데 周圍 몇 곳에도 貝殼이 들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確認調査되지 않은 貝塚이 많으므로 앞으로 年次的인 發掘調査가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調査에서 物心兩面으로 많은 後援을 주신 金相朝郡守와 李成甲面長 그리고 現地까지 來訪하여 遺物整理와 包裝까지에 協助해주신 同人 李龜烈 李宗碩 文甲洙 李浩官 金和英 諸氏와 海軍士官學校의 禹炳熙教授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註 ①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國立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第二冊 金元龍編) 二四·三〇頁 三浦와 泗川郡 項에 보면 貝塚은 一個 處 뿐이다.

② 六月中旬 智異山地區調査時 歸路에 同人 文甲洙 鄭明鎬 兩氏와 함께 現地를 初踏하여 確認 調査한 바 있다.

③, 特別(Special) 「트렌치」란 뜻에서 全文에 S「트렌치」라 하였다.

龍門寺一浮屠의 舍利裝置

文 明 大

龍門山이란 이름이 輿地勝覽에 「龍門寺在彌智山山之稱龍門以寺」라 보 이는 名刹이었다. 그런만치 銅鍾, 佛像의 施納에서 부터 重修에 이르기